

<2016년 11월 9일 수요말씀>

## 생각하면 답이 온다 잘해라. 잘해야 잘된다

본 문    마태복음 25장 21절

『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. 착하고 충성된 종아.

네가 <적은 일>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<많은 것>을 네게 맡기리니  
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.』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이번 주에는 <하나님과 성령님의 계시의 말씀>  
두 가지를 전해 주었지요?

‘생각해야 답이 온다.

잘해라. 잘해야 잘된다.’ 라는 말씀이었습니다.

◎ 주일에는 ‘생각해야 답이 온다.’에 대해서  
더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.

오늘은 ‘생각’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하고,

‘잘해야 잘된다.’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해 주겠습니다.

◎ <설교>로 말씀하면,  
내용을 쭉 이어 가면서 설명을 해 주니  
설교 내용이 쭉 꿰어지면서 핵심이 들어옵니다.

<잠언>으로 말씀하면,  
함축되어 있는 핵심 내용을 하나씩 탁탁 끊어서 전해 주니  
핵심이 바로 귀에 들어옵니다.

◎ <설교의 맛>과 <잠언의 맛>이 조금 다릅니다.  
고로 주일말씀과 수요말씀의 맛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.

◎ 주일에 ‘설교’로 해 주었으니,  
오늘은 ‘잠언’으로 해 주겠습니다.

그러면 주일 설교가 생각나기도 하면서,  
핵심이 하나씩 마음에 박힐 것입니다.

그러면서 주일에 못다 한 말씀을  
보다 함축적으로 ‘잠언’으로 전해 주니,  
더 다양한 내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.

### <말씀 시작>

◎ 먼저 ‘**생각해야 답이 온다.**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◆ (하나님, 성령님) <생각>해야 ‘답’이 온다.

◆ <생각>해야 ‘잊은 것’도 생각난다.

- ◆ <생각>해야 ‘맛’ 이 난다.
- ◆ 향기가 나도 <생각>을 안 하면, 모른다.
- ◆ 냄새가 나도 <생각>을 안 하면, 모른다.
- ◆ 눈으로 봐도 <생각>을 안 하고 보면, 모른다.
- ◆ 행해도 <생각>을 안 하면, 못 느낀다.
- ◆ 귀에 소리가 나도 <생각>을 안 하면, 안 들린다.
- ◆ <생각>을 안 하고 보니, 봐도 안 보였다.  
소리가 나도 안 들렸다.  
냄새도 향기도 안 났다.  
음식을 먹어도 맛을 못 느꼈다.
- ◆ 생각해야 보인다. 들린다. 느낀다.
- ◆ <생각>해야 하나님이 부르셔도 들린다.
- ◆ <생각>해야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도 알게 된다.
- ◆ <눈>으로 쳐다봐야 보이듯,  
<생각의 눈>으로 보고 생각해야 생각난다.
- ◆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, 뇌에서 없어진다.

- ◆ 생각을 ‘깊이’ 하려면, 한 가지에만 집중하여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기도에 깊이 집중하여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기도하면서 삼위와 대화하여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영을 생각하고 영의 세계를 생각해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삼위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행해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주와 일체 되어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회개하고 의롭게 살아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려면, 새벽 일찍 기도하여라.
  - ◆ 생각이 ‘신령’ 하고 ‘지혜’ 로우려면,  
삼위와 주의 말씀대로 자주 생각하여라.
  - ◆ 생각은 3단계로 한다.  
첫째, 빠진 곳 없이 전체를 생각해라.  
둘째, 좋은 것과 보다 못한 것을 분별해라.  
셋째, 최종적으로 판단해라.
- 이것이 ‘생각의 삼위일체’ 다.  
이 세 가지를 한 틀로 하고 생각해라.
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<인간의 생각>에다  
말씀을 주시고 감동과 영감을 주시어 ‘생각’ 나게 하신다.  
고로 <생각>이 ‘생명’ 이다.
- ◆ 자꾸 <생각>해야 ‘기억’ 한다.
- ◆ <생각에서 잊은 것>은 기도하여 전능하신 삼위께 ‘답’ 을 받아라.
- ◆ 사람은 <생각>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.  
고로 <생각>을 잘해라.

#### <잠시 쉬었다가>

- ◎ ‘생각을 잘해라.’ 이 잠언에 이어서  
계속해서 ‘잘해야 잘된다.’ 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.
- ◆ 행할 때 잘하듯, <생각>을 잘해야 된다.
- ◆ 세상만사 모든 것을 잘해야 잘해진다.
- ◆ 글씨 한 자도 잘 써야 잘 써지듯,  
<생각>도, <하는 일>도 잘해야 잘된다.
- ◆ 개인적으로도 섭리사적으로도  
과거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던 일들을 보아라.  
잘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문제가 생긴 것이다.

- ◆ 화재도, 교통사고도, 각종 사고도, 전쟁도, 생명이 유실된 것도 지구 세상 수백만 가지 문제와 피해를 보아라.

모두 생각을 잘못하고 잘 행하지 못해서  
사고를 당하고 각종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.

- ◆ 말하는 것도 잘못하면, 오해가 생기고 감정을 갖게 된다.
- ◆ 잘하려면, 배우고 알아야 된다.
- ◆ 종교 역사가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,  
왜 하나님과 메시아를 믿으면서도 ‘고통’을 받았겠느냐.

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,  
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제대로 잘 못 했기 때문이다.

- ◆ <잘하는 자>는 ‘인간으로서 신’이다.
- ◆ 잘하면 잘된다.
- ◆ 매일 잘 생각하기다.
- ◆ 매일 잘 행하기다.
- ◆ 잘하려면, ‘시간’도 많이 들어간다.
- ◆ 글씨 한 자를 잘 쓰려고 해도 ‘시간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.  
그래도 잘하려면 ‘시간’을 투자하며 해야 된다.

- ◆ 습관과 버릇과 성격 때문에 잘할 수 있는데도 못 한다.
- ◆ 잘해서 ‘온전’ 하게 되고 ‘휴거’ 되는 것이다.  
<최고로 잘한 자의 영>은 ‘황금성 천국’에 들어가게 된다.
- ◆ <잘하는 자>는 ‘팔방미인’이다.
- ◆ 잘하면, 잠언도 간단하게 쓴다.
- ◆ <잘하는 자> ‘한 명’이 <못 하는 자> ‘천 명, 만 명’보다 낫다.
- ◆ 잘해야 꼭 구원할 자도 구원한다.
- ◆ 잘못하면, 꼭 구원받을 자라도 구원하지 못한다.
- ◆ 교회에서도 ‘잘하는 자들’에게 사명을 주어라.
- ◆ 잘하려면 <생각>을 깊이 하고 <행동>을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만  
자꾸 배우고, 연습하고, 차원을 높이고,  
자꾸 깊이 파고들고, 연구하고, 기도하며,  
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와 같이 해야 된다.
- ◆ 잘하면, 사탄이 차원이 낮아서 못 따라온다.
- ◆ 잘할 때까지 ‘연습’ 해라.
- ◆ 잘하면 ‘한 번’에 한다.

- ◆ <못 하는 자>는 잘하는 자를 도우면서 배우고 해라.
- ◆ <잘하는 자>는 금메달을 딴 자같이  
수백 번, 수천 번, 수만 번 ‘연습’ 해서 한 것이다.
- ◆ 설교도, 교회 운영도, 전도도, 강의도, 관리도 모두 잘해야 된다.
- ◆ 못하는데 하면 - 자기 손해, 교회 손해, 주 손해,  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모두 손해다.
- ◆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어도 잘 찾아야 된다.
- ◆ 지금도 자기 주관권에 ‘각종 보화들’ 이 있다.  
잘 찾으면 찾는다.
- ◆ <자기가 좋아하는 것>이 ‘보화’ 다.
- ◆ 어떤 자는 <주>가 ‘보화’ 라고 해도  
관심이 없고, 생각이 멀고, 귀히 여기지 않는다.
- ◆ 어떤 자는 “내가 보화다.” 라는  
주의 비밀의 한마디를 듣고 행하여  
<주>를 ‘자기 보화’ 로 삼고 ‘수십 가지 소원’ 을 이루었다.  
  
곧, 빠른 치타가 전도된 사연이다.
- ◆ 얼굴도 몸도 관리를 잘해야 안 늙는다.

- ◆ 잘해야 병도 안 든다.
- ◆ 잘해야 병도 고친다.
- ◆ 생각 잘하기, 말 잘하기, 행동 잘하기다.
- ◆ 잘하면, ‘불가능한 것’도 이루어진다.
- ◆ 두 사람에게 ‘똑같은 것’을 주었다.

한 명은 ‘그것’을 가지고 성공했지만,  
다른 한 명은 ‘그것’을 가지고도 성공하지 못했다.

예정은 두 사람 다 성공하는 것이었다.

어디에서 운명이 좌우됐겠느냐.

한 명은 정말 잘했고, 다른 한 명은 보통으로 하고 잘 못 했다.

#### 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지금까지 69개의 잠언을 썼다.  
 <첫 잠언>은 ‘하나님과 성령님’이 주셨다.  
그 <하나의 잠언>을 가지고 잘 생각하면서, 지금까지 잠언을 썼다.
- 성공한 새벽이다.  
<하나>를 가지고 장사하여 ‘많은 것’을 남긴 것이다.
- 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 ‘하나’를 받고 들었으면,  
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잘 생각해 보아라.

그러면 수습 가지와 연결되어 수습 가지를 생각하고 행하게 된다.

- ◆ 지금 귀에서 ‘비행기 소리, 폭포수 소리’가 난다.  
자꾸 소리가 나니 힘들다.

그래서 이 소리에 신경 안 쓰고

말씀을 받는 데 ‘찬양해 주고 응원해 주는 소리’라고 생각해 버리고  
오직 ‘말씀’만 받고 있다.

그러니 소리가 안 들린다.

신경 쓰는 대로, 생각을 집중하는 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다.

- ◆ 저마다 세상 소리, 유혹 소리,  
각종으로 심정 상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도  
<핵>을 잡고 희망으로 집중하여 끝까지 행해라.

누구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,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

“말씀해 줬는데도 내 말을 생각하지 않고,

그런 것을 신경 쓰고 생각했느냐.” 하신다.

- ◆ 타인으로부터 들리는 소리,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육의 소리는  
귀마개로 귀를 막으면 된다.

- ◆ 보면 죄를 짓고 해가 될 것이라면, 눈을 감으면 지나간다.  
그리고 나서 눈을 뜨면 된다.

- ◆ <생각>에서 ‘답’이 온다. 생각하여라.

- ◆ <생각의 수도 생활>을 하여라.

◆ <생각>을 놀리지 말아라.

◆ 한번은 ‘기쁨’ 이 사라졌다.

‘이상하다?’ 하고 생각하는데,

‘하나님과 성령님과 각종 것들’ 을 잊고 있었다.

잊으니, ‘기쁨’ 도 사라진 것이었다.

다시 생각하니, ‘기쁨’ 이 왔다.

◆ <온전한 글자>에서 ‘받침’ 이 빠지거나 ‘한 획’ 이 빠지면,  
다른 내용이 되어 ‘다른 글자’ 로 생각되듯이,  
<생각>에서 ‘삼위일체와 주의 말씀’ 이 빠지면  
희망과 기쁨이 빠지고 ‘다른 생각’ 으로 흐르게 된다.

◆ 삼위일체는 ‘끝’ 이시다.

고로 끝내주게 대해 주시고 끝내주게 행하신다.

삼위와 일체 되면, 모두가 그러하다.

◆ 하루 이틀 살다가 말 것도 아닌데,

지금이라도 아예 <마음과 생각과 행위>를 잘 만들어 놓고 살아라.

그러면 <자기 생활>도 그같이 만들어지고,

그로 인해 <혼과 영>도 매일 온전히 변화된다.

◆ <자기>를 매일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,

<자기 집>도, <환경>도 새롭게 만들어지지 않는다.

◆ <자기 변화>는 ‘삶의 변화’를 이루고 ‘환경의 변화’를 이룬다.

◆ 섭리사를 나가면 다시 못 들어오듯,  
〈휴거 책임〉을 못 해서 ‘휴거를 상실’하면 끝이다.

〈휴거 실패자〉는 ‘세상에서 최고로 실패한 자’다.

어리나 크나 〈휴거에 실패〉하면, ‘영원히 후회’다.

〈휴거〉는 ‘저마다 지금 실제로 이루고 있는 실체’다.

전해라! 표현을 잘하여라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를  
마치 ‘우상’ 섬기듯 섬기지 말아라.

결혼해서 같이 살듯이,

매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.

◆ 일만 하면 ‘종’이다.

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주와 같이 사는 시대다.

삼위와 주가 땅에 찾아왔으니, 모시고 같이 사는 시대다.

◆ 〈휴거된 삶〉은

‘결혼해서 모시고 사랑하고 이야기하고 일체 되어 사는 삶’이다.

◆ 〈성약역사 1000년 기간〉은

‘삼위일체가 땅에서 시대를 맞고 사는 자들과

같이 살아 주시는 기간’이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여기서 끝내지 않고, 계속해서 <잠언>을 써 내려갔습니다.

- ◆ 하나님과 성령이 주신 ‘하나의 잠언’ 으로  
지금까지 잠언들을 썼다고 말하니, 또 잠언을 주셨습니다.

(하나님) <한 잠언>이 ‘100잠언, 1000잠언’ 이다.

- ◆ <잘하는 것>이 ‘축복’ 이다.

- ◆ 여기까지 잠언을 쓰고,  
하나님께 ‘**끝내주는 잠언**’ 을 달라고 했다.

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끝까지 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” 하셨다.

- ◆ 하나님도 말씀해 주셨으니,  
성령님도 하나님과 같이 ‘**끝내주는 잠언**’ 을 달라고 했다.

이때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

“<시작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” 하셨다.

◎ 정말 ‘끝내주는 잠언’ 이지요?

다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을 외쳐 볼까요?

**<자막> <끝까지 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**

**<시작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**

- ◆ <잘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

◆ 끝내준다는 것은 ‘더 오를 수 없이 정상에 오른 것’ 과 같다.  
고로 ‘승리한 자’ 다.

◆ <제시간에 제대로 잘하는 자>는 ‘끝내주는 자’ 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계속해서 말씀하겠습니다.

◆ 실수 안 하기, 차원 높이기, 멋있게 잘하기다.

◆ 잘해 봐야 - ‘평생’ 을 봐도 영광이고 ‘후대’ 까지 영광이다.

◆ 잘하려고 하면, 모두 잘할 수 있다.

◆ <구상>을 잘하기다.

<구상>은 역시 ‘하나님’ 이시다.

하나님의 구상을 받고, 삼위와 함께 잘 행하기다.

◆ <구상>은 ‘하나님’ 이시다.

하나님의 구상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같이 돕고 함께하신다.

◆ 매일 잘하면, 삼위일체가 매일 도우신다.

◆ 못해도, 삼위일체는 잘하라고 도우신다.

◆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,  
그 심정을 알아라.

- ◆ 잘 못 해서 ‘실패하고 망한 자들’ 이  
지구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라.
- ◆ 신경 쓰고 잘했으면 ‘잘될 자들’ 이다.
- ◆ 불의와 불법은 잘해도 심판받는다.
- ◆ <자연성전>을 보아라.  
하나님의 구상을 받고 잘해 놓으니, 얼마나 좋으나.  
모두 ‘자기 것’ 이다.  
  
아끼고, 관리하고, 사랑하고,  
삼위일체를 찾고 대화하고 감사하며 귀히 써라.
- ◆ <잘하는 것>이 ‘기술’ 이다.
- ◆ 잘해라. 정성스럽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는 것이다.
- ◆ <한 가지>를 잘하면 ‘한 가지’ 만 잘된다.  
<모두> 잘해야 ‘모두’ 잘된다.
- ◆ 생활하면서 ‘잘못해서 안 된 것, 실수해서 안 된 것’ 을 생각하고  
잘해라.
- ◆ 어떤 일은 <안 하는 것>이 ‘잘하는 것’ 이다.  
잘하려면 - 생각하고, 분별하고, 최종적으로 판단을 잘해라.  
그래야 ‘아는 지혜’ 를 받고, 때마다 잘하게 된다.

## <잠시 쉬었다가>

◎ 조금 더 말씀하고,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.

- ◆ 잘해라. - 이 잠언을 늘 외우고 다니면서 행해라.
- ◆ <생각>에서 ‘답’ 이 온다. - 이 잠언도 항상 잊지 말고 행해라.
- ◆ <확인하고 행하는 자>가 ‘잘하는 자’ 다.
- ◆ 확인하니 거짓이었다. 속았다. 고로 손해가 갔다.  
다시 잘 생각하여 잘하고 ‘큰 것’ 을 얻었다.
- ◆ <사랑하고 용서함>이 ‘잘한 것’ 이다.
- ◆ <참은 것>이 ‘잘한 것’ 이다.
- ◆ 이성 사랑, 세상 사랑 참고 견디고 잘해서 하늘 앞에 인정받으면  
꼭 ‘축복’ 이 있다.
- ◆ 매사에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잘해야  
문제가 없고, 손해가 없고, 화를 안 당한다.
- ◆ 조금만 잘했으면 되는데, 잘못해서 죽었다. 화도 받았다.
- ◆ ‘잘하는 맛’ 이다.

- ◆ 조금만 더 잘하면, 네가 잘된다.
- ◆ 100% 잘하면 ‘인간으로서 신’ 이다.
- ◆ 정신과 생각을 일도(一到) 하면 ‘신’ 같이 된다.
- ◆ 생각의 영계에 들어가면 ‘신’ 같이 배우면서 알게 된다.
- ◆ 생각을 일도 하면 ‘초인’ 이 된다.
- ◆ 생각을 일도 하면 ‘삼위일체 신과 생각이 연결’ 된다.
- ◆ 생각을 ‘선하게’ 잘해라.
- ◆ <악한 생각>을 하면, 하나님이 막으신다.  
그래도 계속 ‘악한 생각’ 을 하고 행하면, 심판하신다.
- ◆ 술을 먹지 말아라.  
술을 먹으면 본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행한다.  
술 먹지 말라고 해도 먹는 자들에게는 ‘큰 해’ 가 온다.
- ◆ 어떤 남자 세 명이 술을 먹고 헬리콥터에 올라가서  
술김에 헬리콥터를 발로 찼다.  
  
그러다 잡혔는데, 고치는 데 21억이 들어갔다.  
각자 7억짜리 술을 먹은 셈이다.  
술을 먹으면 이같이 행하다 ‘큰 해’ 가 간다.

- ◆ 술 · 담배 · 마약 · 이성 타락을 하는 자,  
말을 강하게 하며 혈기를 내고 함부로 하는 자들은  
모두 ‘생각이 잘못된 자들’ 이다.

그러다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내니, 하나님도 성령님도 막으신다.  
하지 말아라!

- ◆ <생각>을 잘못해서 사고 나고, 죽고, 해를 받는다.  
<생각>을 ‘칼날’ 같이 세우고 행해라.

- ◆ 사건마다 ‘생각’ 을 잘해라.  
그러면 하다가 막혀도 ‘답’ 이 온다.

<생각>을 잘하면 하나님이 ‘그 생각’ 에 역사하시고,  
성령도 주도 돕고 함께하신다.

- ◆ <생각>을 잘하도록 ‘매일 기도’ 하여라.

- ◎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<잠언>을 쓰고,  
교정까지 다 해서 완성하고,  
<주일 설교 한 편>을 쓰고, <면회>하고,  
<편지 50장>을 써서 보내고, <117 기도>로 세 번 기도하고,  
운동장에 나가서 열 바퀴 뛰고,  
허리와 온몸 운동 300회 하며 <운동>했다.

<식사>는 한 끼 먹었다.

빨리하고, 많이 하고, 고치면서 했다.

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.

(단, 식사는 나를 따라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게 해야 된다.)

## <마무리>

- ◆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면서 <하나님과 성령님의 말씀>을  
다 같이 크게 소리 내어 읽어 보고 마치겠습니다. (준비된 글씨 있음)

<영상> 글씨 보여 주면서, 밑에 자막 작게 넣는다.

<생각>하면 ‘답’ 이 있다.

잘해라. 잘하면 불가능이 없다.

<기억>에서 잊으면, ‘기쁨도 희망’ 도 사라진다.

<끝까지 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

<시작하는 자>가 ‘끝내주는 자’ 다.